

“당대 독자들의 정서에 호소해야 한다”

《비전 2003》의 예

한기호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디지털 기술의 놀라운 발달은 우리에게 유토피 아를 가져다 줄 것인가? 한때 인간은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아왔지만, 새로운 기술(문명)인 디지털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인간에게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엄습하고 있다.

원래 모든 기술은 항상 이중성을 띠고 있다. 칼은 요리나 환자치료에도 쓰이지만 살인에도 이용된다. 따라서 선과 악, 천사와 악마, 은총과 저주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기술은 어떤 도덕의 소유자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경우처럼 각기 정반대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신구(新舊)의 문명이 교차되는 단경기(端境期)에 인간이 그 문명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인류의 미래는 결정된다.

e-북 맹신자들의 오산

지금 우리 출판계는 이런 단경기의 혼란이 극에 달한 느낌이다. 기술의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지나친 절망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출판계 종사자들이 중심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 동기부여의 혼란 상태, 즉 아노미 현상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e-북에 대한 논의다.

e-북 맹신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콘텐츠를 디지털 체제에 올리지만 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디지털은 돈과 정보의 독점과 쾌락의 끝없는 중독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모습을 대중에게 심었다. 그래서 다른 한 부류는 디지털의 이런 부정적인 모습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날로그에 대한 열망에 빠져들기도 한다.

자신이 보유한 콘텐츠가 디지털 공간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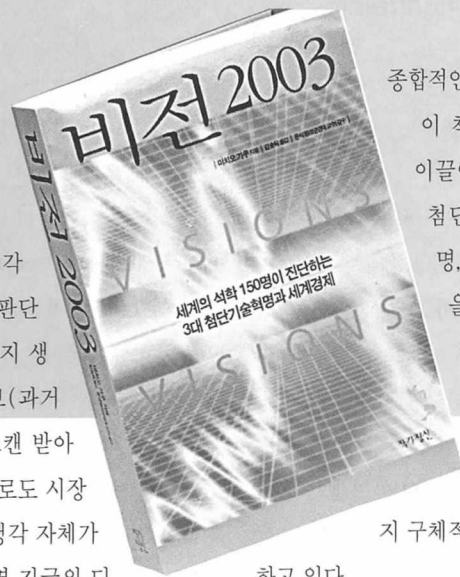
여전히 유용할 것이라 생각하는 e-북 맹신자들의 판단은 분명 오류다. 지금까지 생산한 아날로그적인 정보(과거의 종이책)를 그대로 스캔 받아 디지털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시장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오산이라는 말이다. 분명 지금의 디지털은 껍데기만 있고 내용(콘텐츠)은 없어 당장은 아무 거나 대강 올려놓으면 그런 대로 약간의 관심을 끌 수도 있을 것이나, 곧 시장성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결국 디지털 체제에 맞는 콘텐츠를 새롭게 생산해야만 한다. 디지털 체제에 맞는 콘텐츠(텍스트)를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생산해내느냐에 따라 돈과 정보의 민주화와 균형 있는 욕망의 해방이 달성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 가는 주체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다. 우리들의 노력에 따라 21세기는 비전의 시대가 되거나 기술에 종속되는 노예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지금 출판기획자에게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모두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우주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런 상상력으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특성이 각기 드러나는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내 혼란에 빠져 있는 대중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

대중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작가정신의 《비전 2003》은 세계적인 이론물리학자이자 뉴욕시립대학의 석좌교수인 미치오 가쿠가 노벨상 수상자들을 비롯한 150명 석학들과 나눈 대담과 풍부한 자료, 그리고 저자 자신의 과학지식을 바탕으로 21세기를 향한 현실적이고도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한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21세기를 이끌어갈 변혁의 주체로 3대 첨단기술혁명인 컴퓨터 혁명, 생체분자혁명, 양자혁명을 제시하고, 이 세가지 과학기술혁명이 서로 맞물려 과학기술은 어떻게 발전시키고, 경제와 사회는 어떻게 변화시킬지 구체적으로 예측(예언이 아닌)

하고 있다.

작가정신은 원래 이 책이 2020년까지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어 제목을 《비전 2020》으로 하려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중이 20년 후의 변화까지 관심을 둘 만큼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명이 급속하게 진행돼 2003년에는 현재 기업의 90퍼센트 이상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염두에 뒤 《비전 2003》으로 개제(改題)했다.

또 따지의 카피는 “21세기 세계경제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은 곧 생존의 문제이다!”를 “손끝 하나로 정보를 지배, 디지털 시대의 승자가 된다!”로, 표4의 카피는 “21세기 과학과 기술의 발전 방향을 모르고 21세기 세계경제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를 “2003년, 당신과 당신의 기업은 살아남아 있을 것인가?”로 바꿨다.

이같은 ‘손질’을 통해 이 책은 희망(당근)과 절망(채찍)의 두 길, 즉 기술의 극단적 이중성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비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는 등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당대 독자들의 극단적인 정서의 한 측면에 강력한 자극을 줘야 즉각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